

보 도 참 고 자 료

제 목 : 금융정책협의회 개최

주요내용

□ 재정경제부 김진표 차관, 금융감독위원회 유지창 부위원장 및 한국은행 박철 부총재는 7.20일(금)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아르헨티나 금융불안 이후의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지난번 금융정책협의회에서 결정한 설비투자 촉진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점검하였음

□ 참석자들은 아르헨티나 사태 등에도 불구하고 외평채 가산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조달여건과 차입시 가산금리도 별다른 변동이 없는 등 우리 금융시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자금시장도 은행대출이 확대되고 회사채 순발행 추세가 지속되며 당좌대출한도 소진율이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안정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음

	4월	5월	6월	7.1~15일
은행대출(조원)	5.8	6.7	2.9	2.6
회사채순발행(조원)	1.7	1.4	2.8	0.8
당좌대출한도소진율(기간말, %)	17.8	15.8	14.5	12.7

□ 다만 반도체를 비롯한 IT산업의 침체 등 실물경제의 부진이 지속되고 미국 주가하락에 따라 국내증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등 금융시장의 잠재적인 위험요인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 정부와 한국은행은 설비자금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실물경제에 보다 활력을 줄 수 있도록

○ 지난번 금융정책협의회에서 마련한 설비투자 촉진방안 등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한편

○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등이 설비자금 및 수출금융지원을 보다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이와 함께 앞으로도 기업자금시장 등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가기로 하였음

※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 별첨

보도자료 생산처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500-5341)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과(3771-5155)

한국은행 통화운영팀(759-4475)

最近의 金融・外換市場 動向

2001. 7. 20 (金)

I. 金利, 株價, 換率

- 국고채유통수익률 등 채권시장금리는 한국은행의 콜금리 목표 인하(7.5일) 및 국내외 경기회복 지연 전망 확산 등에 따라 큰 폭으로 하락

- o CP 유통수익률 등 단기시장금리도 하락세 지속

주요 금리 추이

	(연%)						
	2001.2말	3말	4말	5월	6말	7.5	7.19
국고채(3년)	5.43	6.31	6.80	6.17	5.93	5.98	5.57
회사채(3년,AA-)	6.77	7.69	8.05	7.37	7.10	7.14	6.86
CP(91일)	6.20	6.06	6.19	5.98	5.69	5.68	5.47
콜(1일)	5.05	4.94	5.01	5.00	5.03	4.76	4.77

- 은행 여수신금리도 콜금리 인하를 계기로 추가 하락하는 움직임

- o 수신금리는 은행들이 정기예금 및 MMDA 금리를 중심으로 0.1~0.3%p 인하조정

- 단기에금금리를 장기에금금리보다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인하함에 따라 그 동안 계속 좁혀져 왔던 장단기 예금금리격차가 다소 확대

- o 여신금리는 시장금리 연동대출*을 중심으로 하락

* 6월말 현재 은행총대출중 시장금리 연동대출의 비중은 34.1%

은행 여수신금리 추이

(연%)

	2001.2	3	4	5	6	7.1~15
은행수신평균 ¹⁾	5.34	5.11	5.00	5.05	5.00	4.95
(정기예금)	6.12	5.83	5.79	5.79	5.77	5.73
은행여신평균	8.34	8.26	8.10	7.99	7.91	7.86

주 : 1) 금융채 제외 2)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간이조사 기준

< 참 고 >

시중은행의 적용금리별 대출잔액 구성 추이¹⁾

(구성비, %)

	98.8월	99.12월	2000.12월	2001.6월	
프라임레이트 연동	76.3	72.2	53.1	52.5	(36.1)
시 장 금 리 연동	9.6	14.2	33.5	34.1	(54.7)
기 타 ²⁾	14.1	13.6	13.4	13.4	(9.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8개 시중은행대상,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간이조사 기준

2) 정책자금대출 및 예적금 담보대출 등

() 내는 6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 주가는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국주가의 약세 지속, 경기부진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우려, 아르헨티나 금융위기설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

○ 외국인은 현·선물시장에서 순매도를 지속

주가 및 외국인 주식투자 추이

	2001.2월	3월	4월	5월	6월	7.19
종합주가지수	578.10	523.22	577.36	612.16	595.13	545.74
코스닥지수	76.76	68.43	78.97	81.35	76.87	68.38
다우존스지수	10,495	9,879	10,735	10,912	10,502	10,610
나스닥지수	2,152	1,840	2,116	2,110	2,162	2,047
외국인현물순매수 ¹⁾ (억원)	3,589	833	12,955	10,073	-5,696	-4,664p
외국인선물순매수 ¹⁾ (계약)	-8,710	-1,579	1,044	13,259	-9,596	-3,174p

주 : 1) 해당월중

□ 원화환율은 월초 이래 소폭 상승하였다가 어제(7.19일) 및 오늘(7.20일)은 하락세

○ 월초 이래 환율이 상승한 것은 엔화환율이 상승하고 신흥시장국 금융불안과 대만 달러환율 상승으로 원화약세 심리가 있었던 데다,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로 수급사정이 악화된 데 주로 기인

○ 그러나 7.19일 이후에는 엔화환율 하락에 뒷받침되어 원화환율도 하락

환율 추이

	00.12월	01.6.29	7.10	7.11	7.16	7.18	7.19	7.20
원/달러	1,264.5 (-10.0)	1,297.5 (-2.5)	1,299.0 (-2.7)	1,308.8 (-3.4)	1,311.2 (-3.6)	1,311.7 (-3.6)	1,305.8 (-3.2)	1,302.9 (-2.9)
엔/달러	114.41 (-10.6)	124.72 (-8.3)	125.36 (-8.7)	124.38 (-8.0)	125.47 (-8.8)	123.88 (-7.6)	123.30 (-7.2)	123.22 (-7.1)

주 : 1) 10:00 현재, 엔/달러환율은 등경시장 기준
() 내는 전년말비 절상(+), 절하(-)을

□ 한편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반영하는 외평채 가산금리는 아르헨티나 금융불안 등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하향안정세 시현

○ 외평채 가산금리는 아르헨티나의 default 우려가 확산된 7.10일 이후 오히려 하락세 지속

○ 우리나라와 신용등급이 동일한 말레이시아 국채의 가산금리는 상승세를 보였으며 중국 국채의 가산금리는 대체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아시아 주요국 국채 가산금리 추이

	2000년말	2001.3월	6.27	7.9	7.10	7.17	7.18
한 국	240	191	137	171	159	155	148
말레이시아	225	211	213	217	227	235	229
중 국	175	132	125	133	127	125	127

○ 아울러 국내금융기관의 외화자금조달 여건과 차입시 가산금리도 별다른 변동이 없는 상황

II. 資金 흐름

- 은행수신은 단기정기예금 등 단기수신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7.1~15일중 5.3조원 증가)
 - 이와 함께 만기 1년 이상 장기정기예금도 콜금리 인하 이후 장단기 예금금리격차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로 반전
- 투신사 수신은 금리하락에 따른 기대수익률 상승 등으로 MMF를 중심으로 대폭 증가(7.1~15일중 9.1조원)
 - 채권형투자신탁과 채권혼합형투자신탁도 전월에 이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
- 은행신탁은 추가금전신탁 만기도래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지난 4~5월에 비해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는 움직임
- 종금사 수신은 반기결산요인으로 인출된 자금이 월초에 환류된 데 힘입어 증가로 전환

주요 금융기관 수신 추이

(기간중 증감, 억원)

	2001.2	3	4	5	6	7.1~15
은행	15,928	36,835	80,229	59,367	79,330	53,017
- 정기예금	-17,500	7,637	7,924	11,415	-2,126	29,210
(1년 이상)	-29,425	-13,184	-2,761	-16,026	-1,310	6,858
(6개월 미만)	6,438	5,909	18,885	17,549	5,312	28,945
- 수시입출식예금 ¹⁾	5,822	18,448	47,297	9,578	52,906	-1,133
- 단기시정성수신 ²⁾	12,392	899	8,967	26,032	16,513	15,425
투신사	66,638	37,675	-129,179	31,193	9,612	90,736
- MMF	34,481	33,521	-125,961	32,397	-15,527	65,159
- 채권형	36,773	18,990	7,919	3,163	9,792	17,834
- 혼합형	-8,925	-14,100	-11,907	-5,145	13,123	7,484
은행신탁	30,163	5,518	-8,807	-15,074	-3,637	-4,513
종금사	-6,862	-14,526	14,260	-4,439	-10,235	11,071

주 : 1) 실세요구불예금 포함 2) CD, RP, 표지어음

III. 企業資金事情

□ 7.1~15일중 은행대출은 전월동기보다 증가폭 확대

○ 전월중 부채비율 감축을 위해 일시 상환되었던 대기업대출이 월초 재취급되면서 큰 폭 증가로 돌아선 가운데 중소기업대출도 전월과 비슷한 신장세 유지

○ 가계대출은 은행의 가계대출 확대 캠페인이 일단락되면서 증가세가 다소 둔화

□ 회사채는 하반기 만기도래 증가에 대비한 기업의 순발행수요와 투신사 등의 수신회복에 따른 매입수요 등으로 순발행 지속

○ CP도 전월말 반기결산을 앞두고 일시 상환되었다가 월초 재발행되면서 전월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

□ 기업의 당좌대출한도 소진율은 전월말 14.5%에서 7.15일 현재 12.7%로 더욱 하락

기업자금 조달 추이

(기간중 증감, 억원)

	2001.2	3	4	5	6	6.1~15	7.1~15
은행대출 ¹⁾	9,037	13,744	58,045	67,085	28,743	20,441	26,492
(대기업)	-6,342	-3,447	4,735	-1,963	-26,674	2,640	11,827
(중소기업)	-1,034	4,700	18,039	25,406	17,940	8,942	9,696
(가계)	14,830	24,932	34,020	46,171	42,540	9,305	8,359
회사채순발행 ²⁾	33,529	13,874	16,816	13,863	27,874	7,522	7,715
	(12,915)	(5,427)	(3,796)	(9,923)	(7,291)	(5,022)	(7,315)
C P 순발행	-626	5,725	14,477	4,201	-16,788	8,575 ³⁾	9,767 ³⁾
당좌대출한도소진율	17.6	17.6	17.8	15.8	14.5	14.8	12.7

주 : 1) 신탁대출 포함; 부실채권정리, 대출금 출자전환 등 장부상의 증감요인 제외, CLO포함

2) 법정관리, 화의 및 워크아웃 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 발행분

()내는 Primary CBO편입분, 산업은행 신속인수분, 채무조정관련 전환사채 제외

3) 각각 6.1~10일중, 7.1~10일중